

교회소식 Bekanntmachungen der Gemeinde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n.

- 초신자 교육이 점심식사 시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 사랑의 바자회(11/16, 토)를 위한 준비모임이 14:30부터 별관에서 있습니다. (각 교우회 회장, 원로회 회장, 회계부장)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중동선교사협의회를 후원합니다.
- 대신교단 유립중동총회가 내일(11/4)부터 금요일(11/8)까지 터키 갑바도키아에서 있습니다. 총회와 참석하는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11/10) 점심식사 후 11월 제직회가 있습니다.
- 청년부 수련회(11/14-17)가 있습니다.
(주제: 복음의 진가, 강사 :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김형준 목사)
오늘 예배 후 수련회를 위한 호떡 판매가 있습니다.
- 성탄 칸타타(12/22) 연습이 다음 주일 식사후부터 있습니다. 칸타타를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휘자님께 말씀해 주세요. (지휘자: 엄명용집사)
- 세레(유아세레) 12/22(성탄 주일)에 있습니다.
- 2025년 제직과 부서장 임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 초 아버투어를 준비하는 유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초 목회일정 ::

11/10 11월 제직회	2025. 1/5 예결산 위원회 모임
11/17 제직 및 부서장 임명	2025. 1/12 예결산 제직회
12/22 성탄 칸타타	2025. 1/17 예결산 공동의회

고린도전서 16:13-14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Korinther 16:13-14 Wachtet, steht im Glauben, seid mutig und seid stark! Alle eure Dinge lasst in der Liebe geschehen!

섬김이

담임목사	한성호
교육목사	이승재
교육전도사	장재성
시무장로	소병찬,이정수,이태성

예배 및 봉사구역

날짜	기도	안내	봉사
11.03	안미영	이재현 오진주	1조,사랑 여름셀 5조
11.10	인혜진	장은준 안성희	6조,인내 하반기셀 1조
11.17	박상기	고광진 박수연	7조,자비 하반기셀 2조
11.24	엄명용	장바우 윤나라	8조,양선 하반기셀 3조

후원 선교지

- 키르기스스탄(다니엘 P)
- 코소보(S00)
- 독일 쾰른(N00)
- 케냐(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온라인 헌금 안내

IBAN: DE78 5519 0000 0962

2740 15

BIC: MVBMD55

:: 온라인 헌금 시 입력 항목 ::

십일조 - Zehnte
감사헌금 - Dankopfer
주일헌금 - (Sonntags) Kollekte
월정헌금 - Monatskollekte
선교헌금 - Spende f. Mission
건축헌금 - Spende f. Kirchenbau

*온라인 헌금은 비교란에 위 항목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인츠 중앙교회

AD.1986 Evangelische Kirchengemeinde
Mainz Chung-Ang e.V.

원로목사 박익석
담임목사 한성호

목양실. 06131 380 9981

Berliner Str.37 55131 Mainz
www.machung.net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Trachtet am ersten nach dem Reich Gottes und nach seiner Gerechtigkeit, so wird euch solches alles zufallen. (Matthäus 6:33)

제39권 44호 2024년 11월 03일

주일예배

인도자: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목	도		다함께
※찬	송 Lobpreis	31 장	다함께
※신	앙 고 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 시 교 독	Wechsellesung	14 문	인도자
대 표 기 도	Gebet		안미영 권사
봉 헌	Kollekte	524장	다함께
성 경 봉 독	Schriftlesung	디모데전서 1:12-17	인도자
찬	양 Lobpreis	충만	성가대
말 씬 선 포	Predigt	내게 맡기심이니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찬	송 Schlusslied	은혜	다함께
※축 복 기 도	Segen		한성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안내

- 주일 예배 주일 12:00 본당
- 섬김 예배 주일 10:15 청소년부실
- 수요 예배 수요일 20:00 본당

-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유년/ 초등 주일 12:00 별관
- 청소년부예배 주일 12:00 별관
- 청년부 예배 금요일 20:00 본당

김치 담기는 섬김이며 교제

지난주에는 많은 염려속에 교회 김장을 간소하게 살포시(?) 담갔다. 예정했던 수량보다 반 정도 밖에 안되었지만 그도 감사할 뿐이다.

2000년 7월 첫주, 우리교회에 처음 왔을때 한국교회에서는 보지못한 다소 신기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부엌에는 거의 남자들이 설거지와 식기정리를 하고 있었고 몇몇 여집사님들만 식기를 닦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해 할수 없었던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자발적으로 알아서 눈치껏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한다는 것이었다. 말그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더니 십이삼 년 전부터는 구역별로 식사 당번들이 가져오던 김치를 이제는 아예 남교회회에서 담가야 한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고, "뭐야 이거?" 하고 의아해하는 나에게 어르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승기 집사님, 토요일에 만나요"라고 했고, 나는 영혼 없이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했다.

그렇게 시작된 김치담기는 매년 최소2~3번씩 모여서 100Kg, 150Kg 거뜬히 담가왔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도 있었다. 왜냐하면 김치 하는 동안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어서와 독일은 처음이지“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고, 여기 저기에서 남성들은 교제의 도가니탕을 끓여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즐거운 잔치집 같다고나 할까? 그리고 김치담기의 하이라이트! 물빠지는 동안 식사후 연령별 족구...그러나 나에게 족구는 노잼... 그래서 산책...

그렇게 김치 담기는 나의 추억 속 한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말씀이 없이는 변화가 없듯이, 어르신들이 떠난 자리에 계속되는 봉사료 언제부터인가 교제와 섬김을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일이 되어버려, 모두 지쳐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이삼 년 전 평균 80명이었던 주일 참석 성도가 이제는 200명이 넘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말그대로 우리교회도 부흥이라는것을 이룬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성도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헌신자도 많아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가 보다. 봉사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섬길 대상은 두 세 배 늘어나다 보니, 섬기는 이들은 충전할 시간도 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섬김에 사용하다 보니, 번아웃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신앙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보다 방전되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이들의 방전된 신앙을 급속 충전 할수 있을까?

그것은 협력이다. (롬8:28)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서로 힘을 모을 때 주님은 모든일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선이란 하나님의 속성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다. 다시 말해, 너무 아름다웠다는 뜻이었다.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공동체
마인츠
중앙교회는

얼마 전, 김치 지원자 요청을 단독방에 올렸을때 신청자는 5명 뿐이었다. 마음속에 한가득 밀려오는 불안과 근심...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걱정과 우려의 소리... 나 또한 '이걸 해야해 말아야해... 이미 주문했는데 어떻게 하지...', 갈등 속에 '김치 양도 반으로 줄여야 겠다...' 는 믿음없는 비상하지 못하는 한 마리 독수리가 되었다.

드더 당일 김장 스타트!

이태성 장로님과 나, 단둘이 김장 물품을 창고에서 꺼내며 시작... 권사님들이 준비해주신 아침 빵을 먹고 나니 한두명씩 힘을 보태려 모여드는 동역자들... 점심시간도 안되었는데 30명 가까이 모여서 아쉽고 소박하게 김장 100Kg를 가뿐히 담갔다. 그리고 김치 담기 역사 이래 최단 시간, 식사를 하고도 오후 2시에 남성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위한, 보기에 좋았던 교제의 시간을 마감 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해 왔고, 변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내년에는 섬김을 위한 김치 담그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신한다.

기도 제목

1.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2. 사랑의 바자회(11/16)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3. 하나님 나라의 비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4. 교회와 가정이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 문화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5. 자녀들의 학업의 문, 진로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6. 2025년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충기, 그리고 건강을 주옵소서. (유리아)
7. 산모들(진한나사모, 최혜정사모, 장유진성도)의 건강과 태아들을 보호하옵소서.
8. 알바니아 장대로-허시온, 윤바실-김레리아선교사님 가정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9. 부렐의 엘귀스(목사), 엘티오나(사모)의 삶과 사역을 지키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0. 선교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복음전파에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